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누가복음-사도행전

## 세션 5, 기독교론과 구원, The NewCommunity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신학, 기독교론, 구원, 새 공동체에 관한 Darrell Bock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와 신약성서에 대한 그의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의 글에서 기독교론과 구원을 공부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며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이 땅을 완전히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은 누가복음 1:32-33, 46-55, 69-75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과 3장 18-21절에 나오는 종말론적 담론은 미래의 희망이 현재의 취임식에서 소멸되지 않고 구약의 뿌리와 연결되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의 모든 약속,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까지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Bock 박사의 세대주의를 조금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도 그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는 해로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비추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눅 1:78-79). 성령의 약속(눅 3:15-18, 24-49, 행 1:8)과 죄 사함의 소망(눅 24:47)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악귀와 다른 세력에 대한 예수의 기적은 그분이 그러한 약속을 실현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임재로 유익을 얻을 왕국의 가장 확실한 주체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8:26-30. 구원의 모든 혜택은 그들의 것이지만 잠재적인 수혜자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복음 13:23-30, 누가복음 14:16-24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의 통치의 현실을 직면하게 될 원치 않는 신민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반응하는 주체가 있고, 잠재적인 주체가 있으며, 의지가 없고 저항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의 통치의 현실을 직면하고 지금이라도 그분께 책임을 져야 할 원치 않는 신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27, 누가복음 21:24-27, 사도행전 3:20-26, 사도행전 10:42, 사도행전 17:30-31. 그러나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 원수들 (행 19:27)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것은 비유이지만 적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심판과 진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왕과 관계를 맺고, 따라서 왕국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디에 적합한가입니다. 성령.

구속의 중심 인물인 성령은 약속된 위치(눅 3:15-18)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가능하게 하는 자(눅 3:21, 4:16-18)로 이동합니다. 온전한 약속은 나중에 성령이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실 때(행 2:1-13) 오순절에 마침내 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징조로 설명합니다(행 2:14-21, 요엘 2:28-32).

그러므로 성령은 높아지신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또는 능력이십니다(눅 24:49, 행 2:30-36, 행 10:44-47, 행 11:15-16, 행 15:8). 성령의 임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 즉 하나님 편에서 그의 새로운 공동체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는 메시아가 죽었고 겉으로는 부재해 보이지만 자신이 보낸 성령의 은사와 임재 안에 그분이 현존하신다고 데오필루스에게 확신을 줍니다. 부활과 승천. 성령 공급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누가만이 승천을 언급하고 발전시킨다. 승천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연결하며 사도행전 2:23-24, 30-36절, 행 3:14-15, 21장, 행 4:10-12, 5:30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통치하실 수 있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용서하실 수 있고, 그 용서의 표시로 축복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21, 4:12, 10:43. 예수님의 권위는 활동적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곳.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이고 마지막은 사도행전 19장 5절이며 그 사이에 여섯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그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는 소망을 나누고, 왕국을 경험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구원을 가져오는 분으로 밝히시며,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그분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 무엇을 가져오고자 하시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는 교사이자 놀라운 일꾼입니다. 누가복음 4:14, 15. 누가복음 4:31, 32, 44.

왕국을 제안하는 데 그분의 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왕국의 도래는 희년의 맥락에서 해방과 치유로 묘사됩니다. 누가복음 4:16-21, 레위기 25:10, 이사야 61:1-2.

그러나 여기에는 축복을 경험한 결과 윤리적 명예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누가복음 6:20-49. 비유는 동일한 조합을 보여줍니다.

식사 장면이 지배적인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6-9 및 또한 사도행전 13:23-40. 사도행전 14:16-24.

사도행전 29:18. 이 본문은 구원의 기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체가 인종 차별 없이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식탁 교제를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0, 11, 15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연합이 있어야 한다. 화합 너머에는 윤리적 삶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 윤리적 명예가 포함됩니다.

많은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사랑, 겸손, 섬김, 의가 관계를 지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25-37, 11:5-8, 14:1-12, 12:35-48, 15:1-32, 16:1-8, 19:31, 18:32, 19:33, 19:34, 19:35, 19:36. 18:1-8, 19:11-27.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즉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헌신이 그토록 두드러지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9:21-26. 누가복음 9:57-62, 누가복음 14:25-35, 누가복음 18:18-30.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제시한 승영에 대한 내용이 십자가보다 더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가 제시하는 예수의 높아지심은 십자가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사역에 대한 구원의 기능을 부인하고 예수와 그의 죽음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압력을 받고 있는 교회를 위한 모범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러한 윤리적 견해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Tyson은 1986년 책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유대교와 뉴웨이(New Way)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지 강조합니다. 지도자들은 예수의 권위 주장에 대해 토론하는 반면, 누가는 예수의 죽음이 이 갈등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누가에게는 십자가가 바울보다 덜 중요하지만, 누가의 가르침에서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윤리적이거나 역사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고난자이십니다(누가복음 22장과 23장). 그러나 두 본문은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정의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20. 누가가 제정한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만찬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되,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신 것을 읽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 가장 분명하게 예언된 새 언약을 시작합니다.

그의 피가 교회를 사느니라, 행 20:28. 예수께서는 밀레도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시면서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요한의 글도 아니요 누가의 글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20:28.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과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신 모든 양 떼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고 하였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주님이 있는데, 주님은 자신의 피로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자로 삼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 말씀과 함께 누가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는 두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잔혹한 죽음과 피로 교회를 사시고 얻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Bock이 정말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언약의 시작과 구원론적 거래를 요약한 후, 다른 두 이미지가 이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라바를 대신하신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신 것을 묘사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불의한 선택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눅 23:13~25).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낙원을 제안한 것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제공하는 예수의 능력을 묘사합니다(누가). 23:36-49. 그러므로 이것들은 십자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그 주제에 기여하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대속물은 죄인들을 대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도 영생을 보장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기적.

예수님의 인 증은 부활뿐 아니라 새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는 기적에서도 나옵니다(눅 7:22, 행 2:22~24). 기적적인 치유는 예수님의 권위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악령을 행하며 열병, 나병, 중풍병, 손 마른 사람, 간질, 수종, 눈 먼 사람, 혈루증, 귀머거리를 고치느니라.

그는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자연을 다스리는 힘을 행사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그분의 인격과 임무를 증거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또한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일 중 일부를 수행하여 그러한 인증이 계속되고(행 3:6 및 16) 예수의 권위도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기억하라. 데오빌로야 내가 이전에 일할 때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여 승천하시는 날까지 너희에게 쓴 것을 기억하라. 그 의미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은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와 구원. 누가가 예수님을 묘사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권위에 관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또한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구원은 왕국을 시작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고, 영을 제공하고, 왕국의 미래 완성이라는 맥락에서 헌신적이고 신실한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약속은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행 3:22~26). 다윗의 희망이 실현되었습니다(눅 1:31~33). 누가복음 1:69. 사도행전 2:25~36.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새 시대의 도래, 새 언약과 관련된 영의 소망이다. 누가복음 22:20. 사도행전 2:14~21.

테오필루스는 예수께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고 이행하신다는 점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구성원들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커뮤니티는 누가 구성하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누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내용과 임무에 대한 기독교론의 영향을 어떻게 보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누가의 묘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완전히 조직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2세기의 새로운 가톨릭교의 모든 특징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12사도와 누가복음 10장의 72사도 외에는 한동안 공식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복음에서 이 그룹은 대부분 유대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프로그램의 혜택이 사마리아인과 비유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4~6. 누가복음 7:1~10. 누가복음 20:15~16, 누가복음 24:47.

인종적 주제가 사도행전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 메시지가 구원의 수혜자인 사회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여성들의 메시지 수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죄인, 세리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요소는 누가복음 1장 50~53절과 6장 20~23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학대받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됩니다. 가난하거나 거부당한 사람들은 여러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6~55, 4:18, 7:22, 14:13 등. 죄인들도 복음의 특별한 대상이다(눅 5:27-32).

누가복음 15:1, 2. 누가복음 19:7. 세리들에게도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세금을 징수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32절, 7장 34절, 18장 9~14절, 19장 1~10절이 삭개오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여성의 반응을 특징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7:36~50, 8:1~3, 48:10, 38~42, 13:10~17, 24:1~12.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표하는 과부들입니다. 누가복음 2:37, 4:25 및 26, 7:12, 18:3 및 5, 20:47, 21:2 및 3. 비유로든 예를 통해서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1세기 사회의 변두리에 있지만 누가복음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종종 그들은 남자와 짝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2:25~28, 15:4~10, 17:34, 35. 몇 가지 참고 문헌을 언급하자면 사도행전 21:9, 10.

복음이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누가복음과 여자와 남자의 사도행전을 함께 연결한 것은 두 성별 모두 복음의 적절한 수신자임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새로운 커뮤니티의 구성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특히 사회에 노출된 사람들, 결과적으로 희망과 하느님을 의지하는 메시지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응답 사진. 누가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을 가지라. 회개, 메타노이아와 회개, 메타노이아는 구약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32 및 24, 43~47에서 히브리어 등가물(주로 shuv)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이 용어는 마음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점은 회개에는 관점의 재조정, 새로운 관점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에 관해서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룰 때, 그것은 그 계획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계획에 방향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회개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3:10~14.

회개는 생활 속에서,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표현됩니다. 누가는 회개에 대한 네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첫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픈 환자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과 치유를 위해 나아옵니다. 누가복음 5:31과 32. 둘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탕자의 행동에 대한 회개는 회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5:17~21. 회개는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만이 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회개의 중심성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인용문, 죄 용서를 위한 회개, 가까운 인용문은 용서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보여 주지만 거기에서는 회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9~14. 넷째, 또한 삭개오의 반응도 교훈적입니다. 누가복음 19:1~10.

사도행전에서도 이 용어가 핵심입니다. 행 5:31, 11:18, 13, 24, 19:4, 20:21, 26:20. 이 동사는 사도행전 5:31, 11:18에서도 적절한 반응, 즉 회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32, 13:3, 5, 15:7, 10, 16:30. 행 2:38, 3:19, 17:30, 26:20. 차례(epistrophe) 라는 용어는 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만 복음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7, 17:40, 22:33, 34, 35, 36, 37, 38, 32. 사도행전 3:19, 9:35, 11:21, 14:15, 15:19, 26:18 ~ 20, 28: 27. 그러나 이 용어는 근본적인 방향의 변화, 소외의 역전을 묘사하고 회개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회개, 돌이키기, 믿음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이 함께 나타나며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또한 피스티스(pistis)를 묘사하고, 소지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동도 묘사합니다. 믿음은 중풍병자의 친구들(눅 5:20), 백부장(눅 7:9), 예수에게 기름을 부은 죄 많은 여인(눅 7:47~50)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사마리아인 나병환자와 소경도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19, 누가복음 18:42. 요컨대 믿음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도행전 3:16, 14:9, 15:9, 20, 21, 24, 24:26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명할 수도 있고(눅 8:12),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눅 8:50). 사도행전에서는 믿음의 중심성과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응답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행 5:14, 15:5). 간단히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실 수 있는 것, 즉 용서와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행 2:21, 롬 10:13). 새로운 공동체의 축복. 누가는 복음에서 제공되는 축복, 용서 또는 해방에 대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합니다(눅 1:77 및 3:3). 누가복음 4:18, 24.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38, 5:31, 10:43, 13:38. 생명, 누가복음 10:28, 12:15, 21, 12:21. 누가복음 18:29, 30.

평화, 누가복음 1:79, 10:5, 6, 사도행전 10:36.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역시 새로운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약속이 제시된 방식은 누가의 의제가 정치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해방 독서, 특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가진 독서나 예수를 정치 운동가로 만들려는 독서는 지지가 부족합니다. 예수께서는 현재 로마의 정치 질서에 도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주변에서 일했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반대하거나 국가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국가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눅 20:20~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윤리는 사회적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세속 기관과 나란히 서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예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행 4:32~38)과 공동체 밖의 이웃들(눅 10:25~37)을 돌봄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 새로운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축복과 변화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공동체의 관대함, 사랑, 활동에 대한 그러한 관심의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들과 달리 새로운 공동체에 반대하고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초월적인 수준에서, 악의 영적 세력은 비록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무력할지라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1~13, 33~37, 누가복음 8:26~39, 9:1, 10:1~14, 18, 11:11, 11:14~26, 22:3. 누가에게 하나님의 투쟁에는 인간의 헌신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의 영향을 역전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공동체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반대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즉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시고 안식일 전통에 도전하시면 그들의 반대는 거의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24, 6:1~11.

이러한 거부의 뿌리는 세례 요한에게 응답하기를 거부한 데서 비롯됩니다. 누가복음 7:29~30, 21~8. 다양한 식사 시간에 그들은 경고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7:36~50, 11:37~52, 14:1~24.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중심에 있습니다. 여행 섹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37~52, 12:1, 14:1~4, 16:14, 15, 24:24, 20:45~47. Brawley는 사두개파를 주요 반대자로 묘사하려고 시도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묘사합니다. 사도행전에 기초하여 좀 더 독립적으로. 그에게 있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저항력이 덜하고 교회 메시지의 핵심 측면을 합법적으로 주장하며 부활을 옹호함으로써 교회 메시지의 핵심 측면을 정당화합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더 부정적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한 비판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이로(누가복음 8:41)와 아리마대 요셉(누가복음 23:50~53)과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분의 죽음을 계획하는 것은 대부분 지도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11, 누가복음 11:53~54, 누가복음 20:19, 누가복음 22:3~6, 누가복음 22:52, 53, 누가복음 23:3~5. 그러나 군중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들은 예수께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피상적이며 때로는 변덕스럽습니다. 전환은 누가복음 9~13장, 9~13장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15장 24절까지 그들에게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대를 꾸짖으심, 눅 11:29~32. 그분께서 나라의 여러 도시를 정죄하심, 눅 10:13~16.

그리고 그는 민족의 잘못에 대해 몇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눅 13:6~9, 20:9~19). 군중의 최종 반응은 그 민족 대부분의 일반적인 반응을 대표합니다. 거절은 심판의 경고를 가져오지만, 그러한 경고는 분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경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언적 후회를 묘사합니다(누가복음 19:41~44). 사실 군중이 바라바를 구할 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누가복음 23:18~25). 예수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그 결과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마지막 예언적 기록, 누가복음 23:27~31.

그 나라가 예수를 거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행 2:22~24, 3:14~26, 5:30 및 31). 이스라엘의 반응은 적어도 현재로서

비극적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받을 예정이지만 방문의 날을 놓쳤습니다(눅 19:44).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 누가복음 21:24.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은 부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인정할 때까지 황폐하다고 누가는 말합니다(눅 13:14).

누가복음 19:34, 35. 사도행전 3:14~21. 사도행전에서 민족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행 2:22~24, 행 5:27~32).

누가는 반유대주의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는 가혹한 일이다. 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희망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꾸준히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제안을 하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며, 유대 공동체에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박해가 보여 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1~12, 누가복음 21:12~19.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친(親)약속적이다.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새로운 공동체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쓰고 회당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이 적들은 사랑받고 기도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27~36, 23:34, 사도행전 7:60. 긴장의 근원인 율법,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긴장의 주요 원인은 새로운 공동체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는 분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율법에 대한 태도가 매우 보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루크가 법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누가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반면 이방인들은 어떤 문제들, 할례와 다른 문제들, 우상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부도덕에 대해 자유롭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법이 구시대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교회는 서서히 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Blomberg, 1984. 마지막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사도행전 10장 11절과 15장, 10장, 11장, 15장에서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와 16장 16절의 논의도 관련이 있습니다. 법은 구속력이 없지만, 선교적 고려 사항은 새로운 신앙의 핵심 문제가 위태롭지 않은 문제에서 법을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의 복잡한 관점에서 율법은 세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로서, 첫 번째로, 법적, 희생적 규범으로서, 그리고 사회학적 특징으로서 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6:1부터 11절,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 음식 규정, 할례, 아마도 안식일 관습의 변화가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 천국 소망의 약속으로 율법이 성취된다.

누가복음 16:16, 17, 24:43~47.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덕적 명령과 관련하여 윤리적 추진력을 갖춘 율법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평행을 이루는 방식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27~49, 누가복음 10:25~47, 누가복음 10:26, 27, 누가복음 16:19~31, 누가복음 18:18~30.

율법이나 그와 관련된 전통은 복음, 특히 안식일 규정을 짜증나게 하는 중심 원천입니다. 누가복음 6:1~11. 사실, 예수께서는 다윗이 안식일에 행한 일이 율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눅 6:4). 안식일에 대한 도전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후에 오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며,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새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누가복음 5장 33~39절).

이 말은 예수께서 정결과 관련된 전통을 따르지 않으셨다는 논쟁의 일부입니다. 예수께서는 적어도 1세기에 율법이 어떻게 읽혔는지에 관해 율법에 도전하셨고, 그의 도전은 그에 대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위는 이러한 도전을 분명히 합니다.

행 10장, 11장, 15장 에서 모든 음식을 공개하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식탁을 차리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율법의 일부 요소와 그로부터 파생된 전통을 거부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회원들이 대부분의 신성한 관습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누가의 명확한 지적과 새로운 공동체 내에서의 반대에 대한 그의 설명은 유대인의 뿌리와 관련된 문제가 공동체 내에서도 살아 있고 짜증의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3:10~17.

누가복음 23:2. 행 6:11, 13. 행 21:28. 사도행전 25:8. 누가는 율법은 약속을 가리킨다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4:43, 47. 사도행전 26:14. 누가복음 24:23.

그는 또한 법과 관련된 차이점을 공개적으로 설명합니다. 논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므로써 이 새로운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율법과 다른 점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15~18.

하나님은 열린 식탁 교제를 명령하는 비전을 통해 새로운 길을 지지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1~33. 누가는 서원을 하는 것과 율법의 다른 요소를 필수 요소로 만들지 않는 한 선택 사항으로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5:22~29, 21:17~26. 그러한 선택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연합이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의 결의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그러한 관습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핵심이며 로마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해결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많은 본문과 행위는 누가가 다루려고 했던 관심사 중 일부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고대 뿌리와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종적으로 혼합된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인종적 차이가 새로운 공동체 에서 얼마나 많은 긴장을 불러일으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누가는 이러한 차이점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 초래된 복잡한 해결책과 타협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서 이 타협을 지지합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신학, 기독교론, 구원, 새 공동체에 관한 Darrell Bock입니다.